THE CHOSUN ILBO (The Korea Daily News) SEOUL

__ 5]

와

缸

의

所数類当行がびたいま十一 の当機會로がの有志試氏及 配者に向州現在의實情及金 記者に向州現在의實情及金 記者に向州現在의實情及金 記書語行が도롱周旋が母皇

可勞働夜學

라해

二尺大雪로 新川 의 交通 出南舒川地方と去九日早日同十 二日外不二尺餘31大雪の降積計 で変通平通信の極難하け日計 (舒川)

仁大川阪

中第月

水川(の) 11 (本) 1

東大 四〇九二年四〇九二年四〇九二年

一三阶〇四止战

高高較

②图②①③①

中限 (計二、〇〇〇石) で限 (計二、〇〇〇石) で限 (計二、〇〇〇石) で 五〇〇石 で 三〇〇石 で 100石 で 100 で 100石 で 100 で 100石 で 100 で 100石 先限(計四 三 100石 三 100石 二、一 00石 二、一 00石 三 00石 1 000石

ļΨ

本の学生では、またの 仁館金名 桑 下兵 古名 名 炒川本澤屋夕後 關單

安峽青年任員改選

がはない。 沿岸の動魚ので、 がは付外元山方面の流入安全の見 を関いて富力主統側預入系二十元萬二十 高三十五萬二千餘順回和高二十 高三十五萬二千餘順回和高二十 一條順の足営月末鉄品量前月末鉄 金三萬四千餘順の和高二十 金三萬四千餘順の和高二十 中日 可(元山)

七州又巡査

다무한한동정 무성상주(成三珠)의탈을들이 그는 들——슬흔기색으로 이 그는 들——슬흔기색으로 이 그는 들——슬흔기색으로 이 그것이참아자긔량심에 허 나 그것이참아자긔량심에 허 나 그것이참아자긔량심에 허 사(遺畫)을보면되지 그 대신인급인있다고 그대신인급인있다고 본보에루보하여 오트효자도(孝 녹계)철도에게 눈이에진종으로 참내실면(失明)첫지되었습으로 다시순사노릇을못하게되리라는 少年3行方不明

双生

지포군양초면무산리(金浦郡陽村面樓山里)류백십구번디 박현 (1八)인지난사일에 무단히 집에 서나간후로 소식이업습이로 박현양인 진포정찰사에 수색원을 집세도안주고

소등에 지흥치가 (趙素吉)의학등(始漢)구반디에 (趙素吉)의학등(始漢)구반디에 (趙素吉)의학등(始漢)구반디에 커로 영구리를

그와가는 의미로이사회 등 아모리생각하면도 살수가 이모리생각하면도 살수가

하다를마치점과 모나기, 이 아이들이 정도된 무소 (제)

당교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제 전부자당하고 면민에게 주당유지비를 지수치안키로 지당박침인 개인의명예나 의 의사도 독재하지 안코 이 의사도 독재하지 안코 자담으로 의비판은자목가가자 기의사상의 자이를표적할만치말기자 기의사상의

사를 존중하야정영하기를 이야한당성리에서일차가질 다이 있는건일 목교교장당 만혼재산을 희생하였습도 가기리 그와가리 전책임을진 수인을 다시맛는 산광교는 再演電力問題

興學校

에

두끼에 시작한기부

上かり日の中か日な対

滿鐵社長被訴 전수원역장이 和100数印画

星

사는 지금까지 되이는 비 수는 듯하고도 업수히 되이는 기의 사오년동안의 변화 모두경 하기되었다 여러 가지고 지 이는 취한증에도 이 이를 두고 있었다 또의 이력하였다.

宣川郡郡山面龍洞

朴

昇

F

宣川南面三 鉴洞

第八席 通 三 单洞 戏

胎

室川南面三省**河**

宣川南面三省洞 落河

K가 이학교에 부임하야온 그해가을에 이학교에 되자교 원이 한사람오게되었었다 지 금外지는 녀생도(女生徒)와남

金

京川青山木工所 **替** 龍洋商 文 文 金 應 公宣川郡郡山面蓬山洞 田 第 第 第 朴朴常商店 熙治 间

의 의 수 등 보고 기를 심추하여 가지 내린것이라더라 그내용인국 최준영이가 조수길 의집합통구법디에게집으로드려 있다가도한푼 최준영이 는 그 비카지 폴파나므 음의 피로운당을 옛지 지 기생기 그러나

宜川

觀

職員一同 南面事務所

食川都南國石和河

清

災勢コの

视朝鮮日報宣川支局發展

...

外面三型洞

采

安化醫院

盆

豐

川郡郡山面古府河

朴 彩

茲

桂 根 宜川南山三峯洞 金金城南西

治

主 年 東京 東京 南南 治 信 科 電川南面三峯洞

奎絹 釆

文 恒 俊

宣川郡南面三省洞

瑞 **宣川郡南面建山洞** 兌

秀 な川南面建山洞 采

朴 晚

朴 治

治炳

彥基

金

党川南面三峯洞

瑞

宜

朴川

實川郡南面三基洞

来

有 同川南面三峯洞 治·

宣川南面三**半洞**

宜川郡郡山面古府洞

朴

元

祚

川支局の引見の引引の

하 죄송하옵니다마는 약소 의정지못하나이다 의정지못하나이다 의정지못하나이다 의정지못하나이다 의원월십이의 춘당 근명 와가를 던지와도 오원들바 도민나 그의동정신을 무한 우리는 동시에리재민 에게 일어에 그와가를 설명을하 의 동정신을표착할 단이던

일보통경부하 임신정당(東京府下入新井町) 삼와승차당 (三鍋勝大郎) 의만털사장(滿饞社長) 삼륙진을달라는 청구소송(滿嫁社長) 나무데 그리유는 삼와가수원의 사건 (刑事事件)의로(실어에 할사사건 (刑事事件)의로(실어에 할사사건 (刑事事件)의로(실어에 할사가수원의 이 의는 일당동안의원들다를 받지 아니하얏다는 악당이리원들다를 받지 (독경당)

京旅府交易 海旅客

는

는 다신생이 온 국국일보다 인

食川郡郡山面**葵山洞** 肚